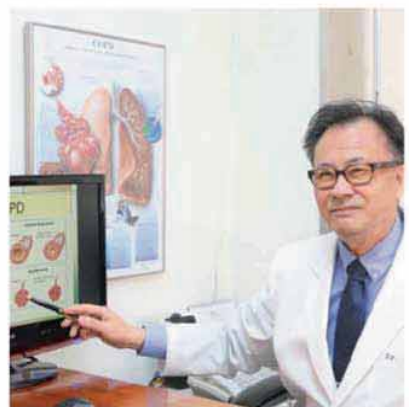


폐COPD의 숨가쁜 고통! 당신은 모른다

기침과 숨참 증상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라

‘카테일 복합약물’ 연구 논문으로 세계를 돌며 강의했고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김남선 박사(영동한의 원장)가 최근 ‘폐COPD의 숨가쁜 고통’은 모른다(상상나무)란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올해도 역시 미국 뉴욕 세계통합의학회와 미시간 의대 오스테오패틱 메디신 등에 초청을 받은 김 박사는 이미 이름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폐전문 한의사다.



영동한의원은 1980년에 강남에 문을 연 이래 비염, 천식, COPD 환자를 50만 명 이상 진료한 경험이 있다.

병명만으로 쉽게 찾도록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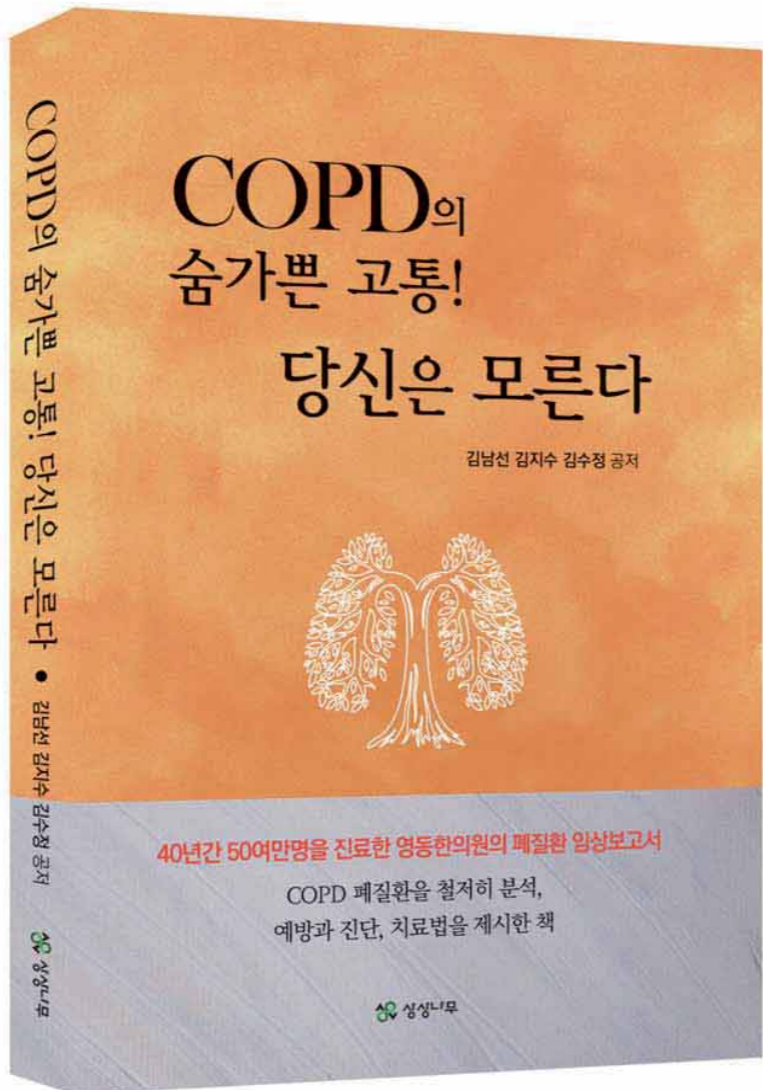
이번 저서는 폐COPD에 대한 다양한 증상과 치료방법을 집대성한 책으로 병명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집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5대 주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가슴압박감, 전신 무기력증입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증상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폐COPD를 의심해야 합니다.”

COPD 환자의 절반이 감기로 오인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이 병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하는 김 박사는 “결국 폐 COPD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담배이며 이외에 미세먼지, 배기가스, 주방가스, 알레르기에 의한 입호흡 습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폐COPD와 연계된 모든 폐질환을 아주 쉽게 다룬 책으로 예방법과 치료법, 증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소 사용하는 카테일한방 복합약물도 소개한다.

고통 주는 폐질환! 5장6부를 잘 다스려야 이긴다
폐기저질환 예방 및 관리법 수록. 폐질환자 필독서.
4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얻은 폐임상 지식 및 근치기록



전국 서점 판매중 **상상나무** www.smbooks.com
 김남선 지음 | 240쪽 | 값 15,000원

수십가지 한약제를 사용

이 약은 김씨녹용영동탕 & 맞춤 K-심폐단으로 이뤄지는데 수십 가지 한약제가 사용된다. 이는 기관지평활근 재생과 폐포 재생에 관여해 건강을 돕는다. K-심폐단은 고가의 약초들에 감심약인 우황청심원이 합방된 카테일 처방이다.
 이 책에 따르면 “그동안 치료과정을 보면 1년간 폐면역약인 김씨녹용영동탕과 심폐 기능 향진약인 K-심폐단 복합 복용으로 10명중 8~9명은 큰 효과를 보았다”고 분석했다. 폐포의 쇠퇴는 늦추고, 재생 속도를 촉진

해서 폐포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 카테일 복합약물 요법의 치료 기간은 빠르면 3~4개월, 늦어도 1년을 넘지 않는다. 현대의학에서 난치 병으로 분류된 COPD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책은 그동안 김남선 원장이 쓴 10여권의 폐관련 책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별 증상과 치료의 액기스만 모아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자신과 관련된 병명만 찾아 읽어도 될 수 있도록 저술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 유럽과 미주서도 초청

저자는 일본동양의학회의 초청으로 도쿄, 오사카를 갔고 국제한의학 세미나를 위해 나고야, 세계의학대회를 위해 요코하마, 국제의학대회를 위해 삿포로 히로시마 후쿠오카 구마모토 다카마츠 샌다이 코토 등 일본 전역을 다녀왔다.

또 한의학의 본류라는 중국 베이징 중의대학, 상하이 중의학원, 타이완 중의학 타이페이대의대와 유럽의 런던 옥스포드 아로마테라피 침의학 등 세계 10대 도시에서 세계석학들과 “폐COPD 카테일 복합약물” “알레르기喘息(천식)호흡기 면역치료”에 대한 논문발표 및 학회, 세미나 컨퍼런스 초빙 강의 등 100회 이상 열었다.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김박사가 초청을 받고 한방카테일요법을 강의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만큼 이 치료법이 COPD에 효과가 있고 치료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 책은 김남선 박사가 오랜 기간 한의원에서 50만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치료한 임상보고서로 그동안 자신이 축적한 의술을 모두 녹여낸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다.

김남선 박사는 “환자들을 보고 세계를 돌며 진행한 연구와 학회 강의를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이 책이 환자들에게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수십편의 논문 통해 폐연구 집중

김남선 박사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쳤다. 대한한의학회 대의원과 일본 동양의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LA K.S.U와 경희대에서 외래교수로 후학들을 지도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알레르기 기침 천식의 치료」 등 수십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저서로 이번이 나온 신간 외에도 「폐호흡 혁명 100년」 등 10여권이 있다.

한방약물 카테일 복합요법 사용한 사례 2

“신기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숨쉬기가 편합니다.”



도 있자 더 이상 방치하면 큰일나겠다 싶어 내원한 경우였다. 진찰해 보니 흡연도 많이 해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도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미 병원에서 혈중 산소포화도(SPO2)를 검사한 결과 79%로 낮았다.

김씨영동탕에 소청룡탕을 합방하여 처방한 결과 기관지의 폐증상이 사라져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본인의 요청으로 환절기 호흡면역약인 쌍폐탕 복용을 하면 서 최근 다시 혈중산소포화도를 검사한 결과 96%가 되어 나도 본인도 크게 기뻐했다. 이는 폐 섬유화증 증상이 개선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폐기능이 강화되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찬 편이며 심장도 약해 큰 소리에 잘 놀라는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실상 심폐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다.

그동안 만난 환자 중에 서울 신림동에서 온 안복순이란 이듬의 57세 주부를 잊을 수 없다. 그녀는 폐와 심장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2008년 폐암 진단을 받아 치료한 전력이 있고 한때 결핵을 앓아 치료한 경험도 있다고 내게 털어 놓았다.

난 그녀에게 의사를 믿고 꾸준히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많은 내방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는 즉시, 또는 1개월 이내에 차도를 확실히 경험하지 않으면 불신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몸의 오장육부를 다스려 천천히 병력을 고치는 한방은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리며 몸을 만들어야 한다. 안복순 씨는 내 처방을 6개월간 잘 지켜 주었고 만성 기침 가래와 숨찬 증상이 95%는 사라졌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그녀는 지금도 평소 기침이 자고 숨이

김남선 원장이 2021년 9월, 뉴욕학회에서 발표할 한방카테일요법 논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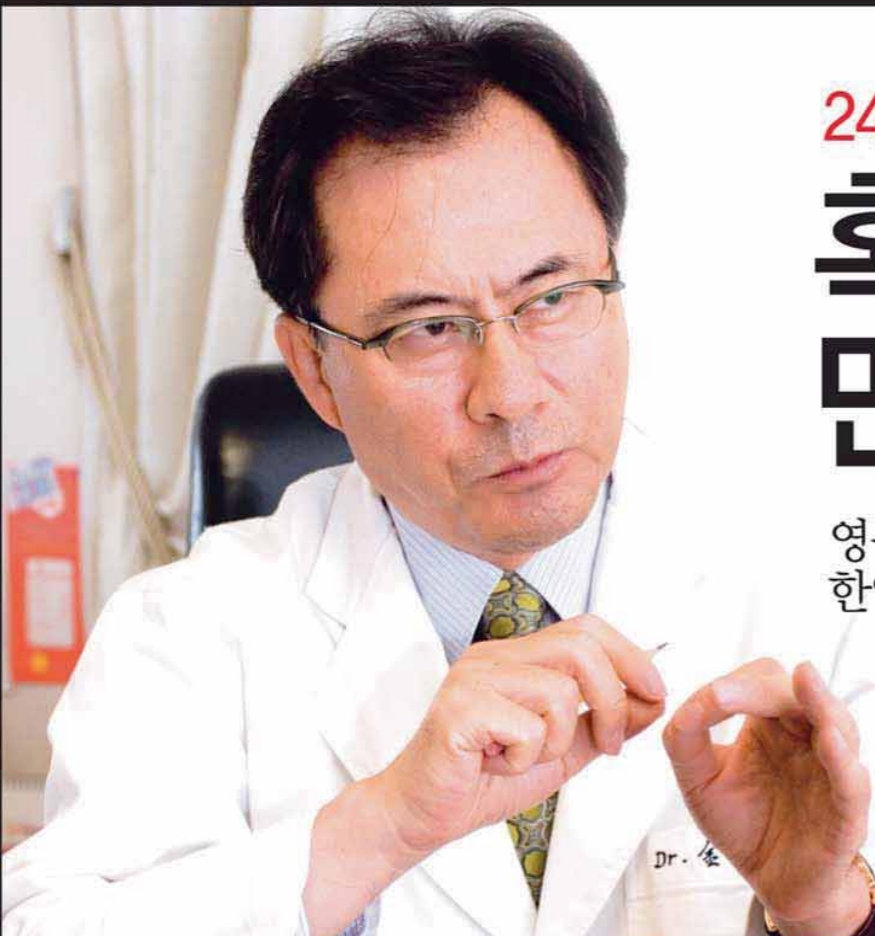


심의학번호 : 제181127-중-33195호

24시간 지속되는 ‘색색’거리는 숨소리

혹시 나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영동한의원에서 다양한 이유로 악화된 폐 기능을 한약을 처방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영동한의원 **예약문의** 02) 542-9557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27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 3번 출구(강남구청 사거리에서 도보 100m) www.eznose.com